

서울시 기술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방안

신창호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묵한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시 기술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방안

2013. 3. 4 제136호

신창호 /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묵한 /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서울시 창업기업의 실태
- II. 서울시 기술창업의 정책수요 분석
- III. 서울시 기술창업의 생태계 구축방안

요 약

기술창업은 서울시와 같이 성숙단계에 접어든 대도시 경제에 있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여 생산성과 고용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기술창업을 위한 인적, 물리적, 제도적 기반은 충분히 갖추고 있으나, 그에 비해 기술창업은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한국 기술창업의 중심지 지위를 유지

한국의 기술창업 환경은 여의치 않다. 한국은 2011년 GEM 조사에서 23개국 중 기술창업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전국 벤처기업의 약 22%, 벤처투자 조합 결성금액의 약 40%가 자리잡은 기술창업의 중심지이다.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창업은 근래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기술창업 산업 분야에서의 창업률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등으로 대표되는 기술창업 부문에서의 단위 사업체당 고용규모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소위 생계형창업 부문보다 최고 3배까지 크고 고용안정성도 상대적으로 높아 고용측면에서의 기여도 기대된다.

서울시 기술창업의 기반은 우수하나 산업 생태계의 구축은 미흡하다는 평가

예비창업자와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수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기술창업의 물리적·산업적 기반은 조성되어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하는 기술창업 생태계의 형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창업기업은 불황에도 자체 혁신역량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예비창업자들은 창업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창업의 결단에는 주변의 성공사례가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인적 네트워크, 마케팅, 기술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다. 예비창업자와 기술창업기업의 정책수요는 자금과 경영기술 지원에서 가장 높았으며, R&D자금과 정책자금을 가장 중요한 자금원으로 꼽았다. 우선과제로서는 자금조달 및 시장환경 조성, 창업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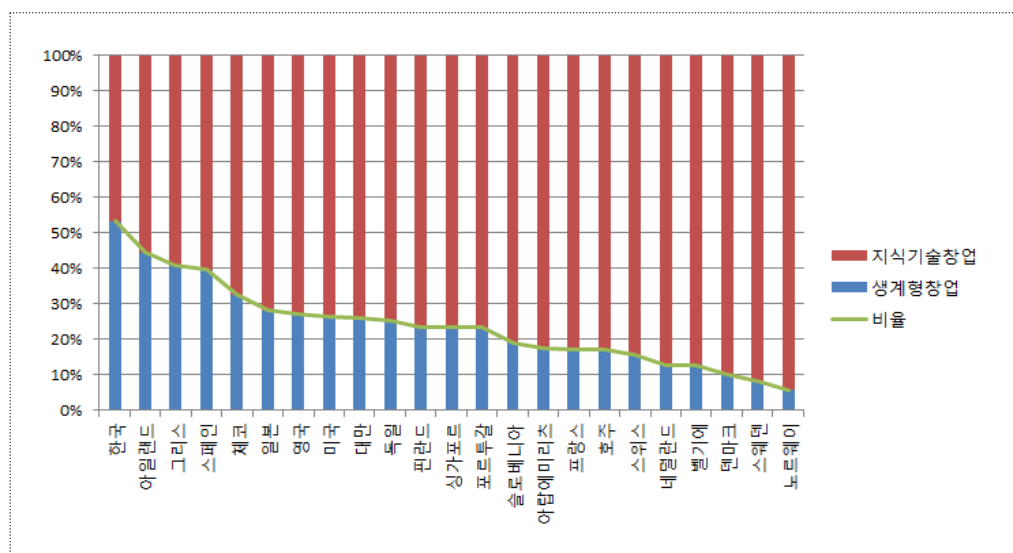
자금과 정보가 선순환할 수 있는 기술창업 생태계의 구축이 필요

서울시 기술창업의 활성화에는 다양한 자금조달 경로를 제공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이 우선과제이며, 마케팅, 기술지원 등의 창업정책 정보 확산과 성공사례 전파, 리더십 교육 등이 중요하다. 서울시 기술창업 선순환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기술창업주체 간의 연계를 장려하여 협력을 통해 혁신과 시장역량을 공유하여 기술이 상품화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 둘째, 기술창업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및 정보전달 체계를 강화하여 창업의 동기부여에서부터 가용한 지원정책의 정보제공에 이르는 영역까지 포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서울시는 기술창업정책의 체계화를 통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기업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배양하여야 한다.

I. 서울시 창업기업의 실태

국내 창업 환경은 기술창업보다 생계형창업 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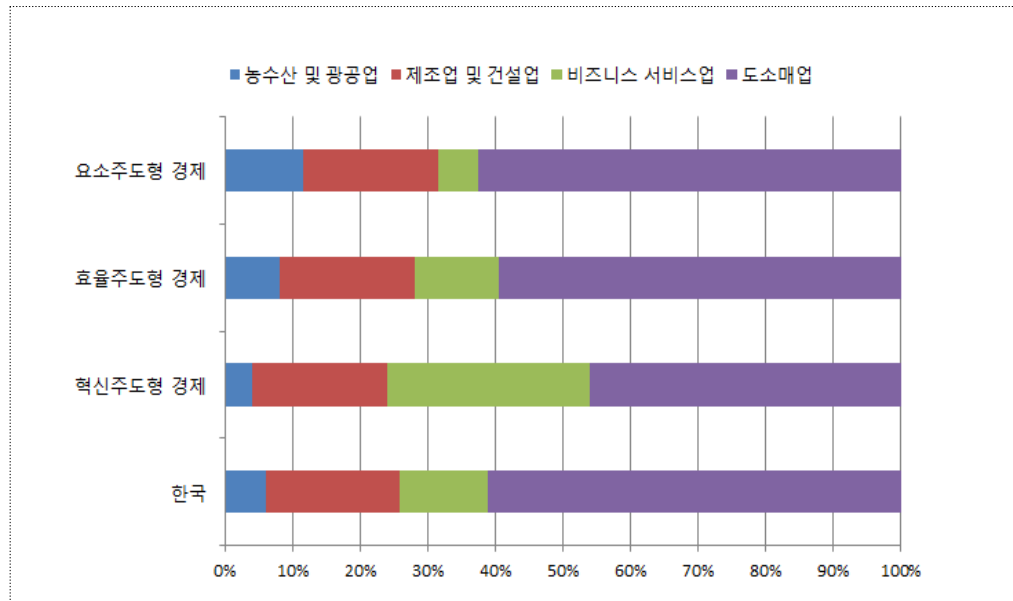
- 국내 창업 환경은 생계형창업 비율은 높은 반면, 기술(기회포착형)창업 비율은 낮은 경향
 - 2011년 기준으로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조사 대상 23개국 중 한국의 2011년 생계형창업 비율은 53.4%로 1위, 기술(기회포착형)창업 비율은 46.6%로 23위를 기록



자료 :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1 Global Report에서 수정

[그림 1] 국가 간 생계형창업 비율과 기술(기회포착형)창업 비율 비교

- 한국은 혁신주도형 경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창업에 있어서는 효율주도형 경제 형태에 근접
 - 중장기적으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지식집약, 혁신활동의 원동력인 기술창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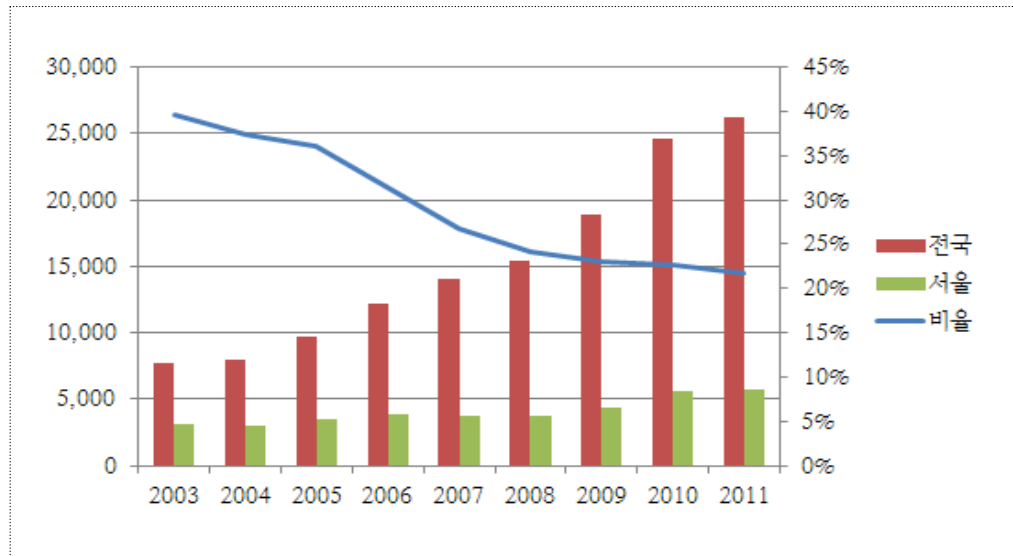


자료 :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0 Global Report에서 수정

[그림 2] 경제구조별 초기창업활동의 산업별 분포 비교

서울시는 한국 기술창업의 중심지

- 서울시는 벤처기업 수, 벤처 및 엔젤투자액에서 전국대비 큰 비중을 차지
 - 서울의 벤처기업 수는 2003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서울의 벤처기업 수는 2011년 기준 5,962개로, 전국의 21.7%가 서울에 입지
 - 벤처기업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대비 서울의 벤처기업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 2005년(36.1%)→2008년(24.1%)→2011년(21.7%)
 - 또한, 2011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매출 1,000억원 이상의 벤처기업은 59개로 전국 전체의 23%를 차지하며,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자료: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그림 3] 벤처기업 수와 서울시의 비중

- 벤처 및 엔젤투자액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11년 신규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금액은 2조 2,591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이며, 전국대비 서울시의 투자비중은 약 40%를 차지
 - 최근 등록 엔젤투자자는 2012년 기준 총 1,03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투자자가 대다수

최근 서울시의 신규 창업 사업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 서울의 신규사업체 총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신규사업체의 생존율도 전국의 평균 이하
- 서울의 신규 사업체 수는 2000년대 중반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 2004~2009년 기간 중 서울의 신규사업체 수는 총 855,943개로, 연평균 3,790개가 감소하는 추세



자료 : 통계청, 2011, 「사업체 생성·소멸(생멸) 현황 분석」

[그림 4] 서울의 신규 사업체 및 휴·폐업 사업체 증감 현황

- 서울의 신규 사업체 생존율은 전국평균에 비해 낮으며, 연차가 높아질수록 전국평균과의 차이는 커지는 경향

<표 1> 신규 사업체의 평균 생존율 차이

(단위: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전국(a)	72.63	56.47	46.42	39.19	33.42
서울(b)	71.09	54.29	43.83	36.40	30.37
차이(a-b)	0.46	2.18	2.59	2.79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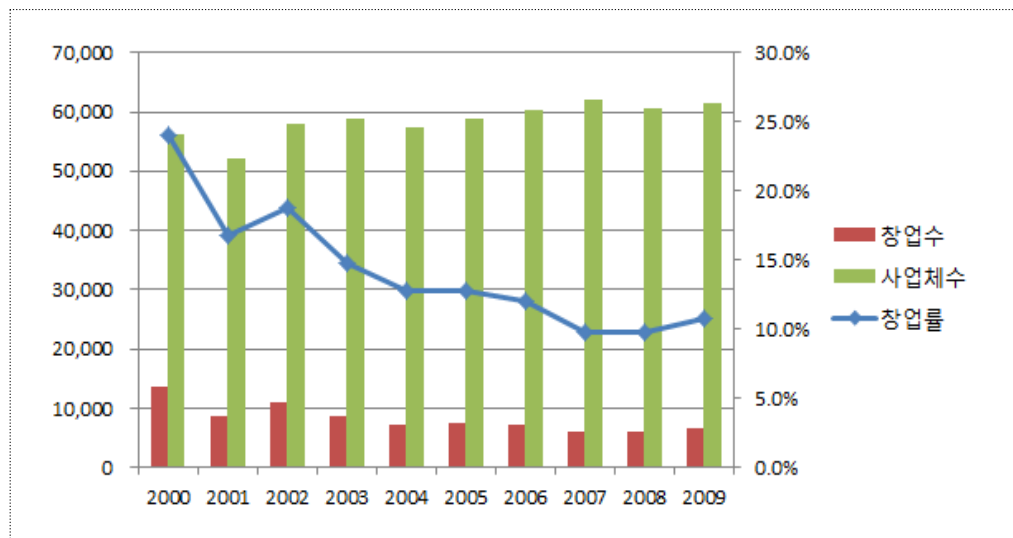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1, 「사업체 생성·소멸(생멸) 현황 분석」

주요 기술창업 산업 분야에서의 창업률은 최근 증가세로 전환

- 서울시 주요 기술창업 산업 분야(비즈니스서비스, 금융, 관광·MICE, IT융합, 바이오메디컬, 녹색산업, 콘텐츠, 디자인·패션)의 평균 창업률은 하향 추세

를 보이다 2007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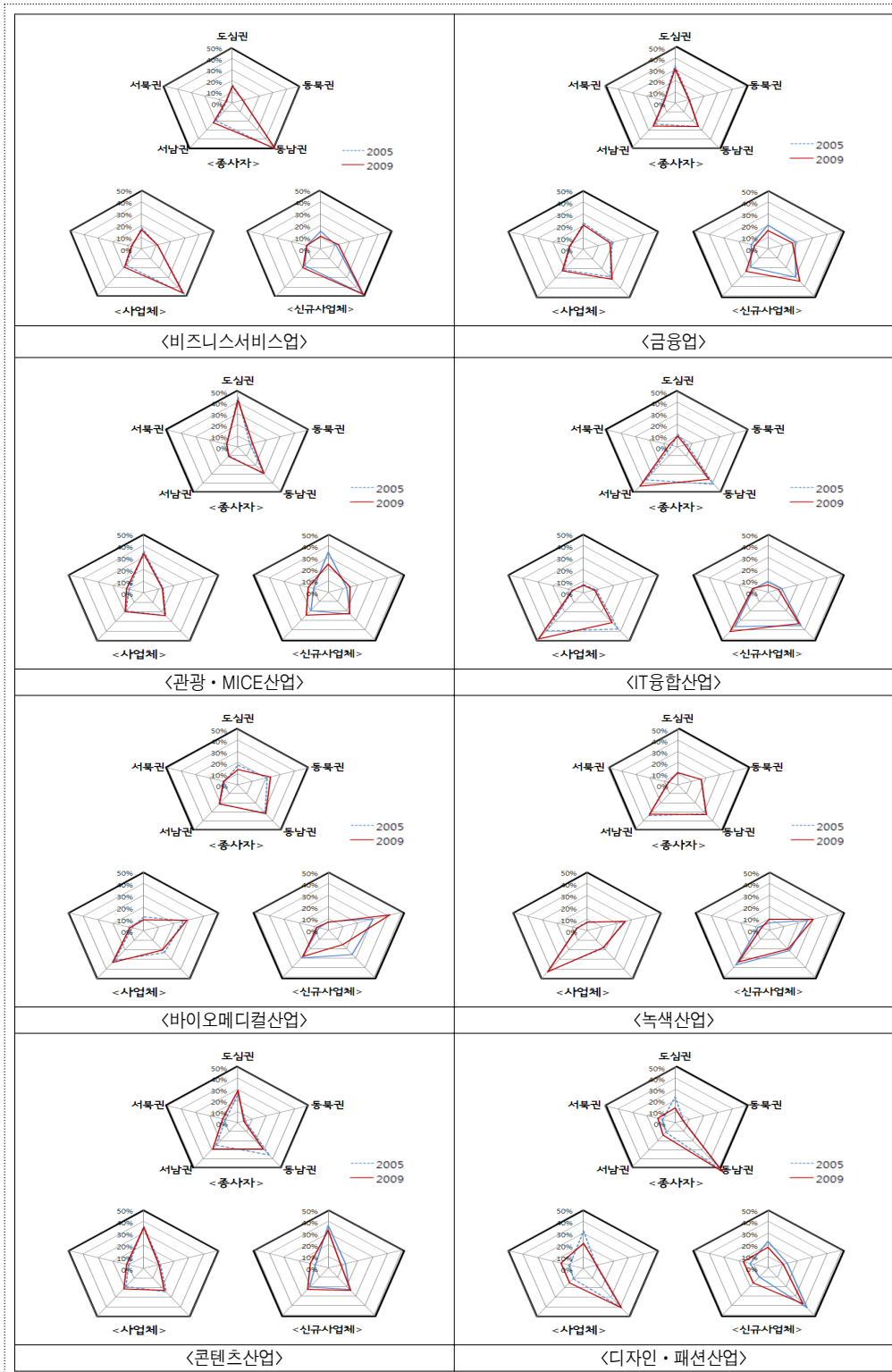
- 서울시 주요 기술창업 산업에서의 창업업체 수도 2007년에는 최대를 기록했던 2000년의 절반 수준인 5천 9백여 개까지 감소하였으나 2008년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여 2009년에는 6천 6백여 개로 증가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각년도(단위 : 개, %)

[그림 5] 서울시 주요 기술창업 산업에서의 전체 사업체와 창업률 변화추이

- 주요 기술창업 산업은 전반적으로 서울의 기존 해당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권역을 중심으로 창업이 증가하는 경향
- 종사자보다 사업체가 많이 집적되어 있는 권역이 또한 창업의 거점인 경우가 주요 기술창업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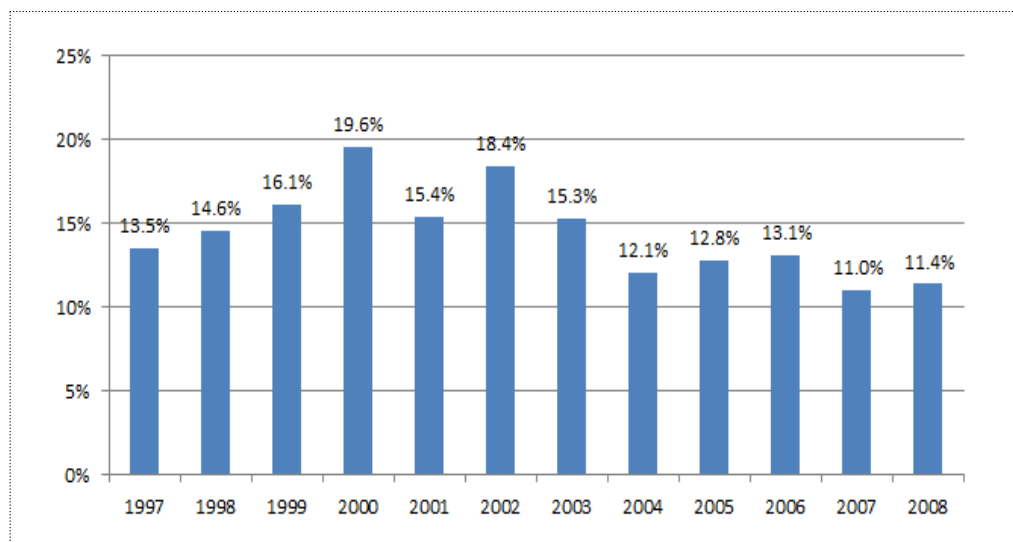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그림 6] 서울시 기술창업 산업의 권역별 종사자, 사업체, 신규사업체 비중

기술창업은 생계형에 비해 비중은 낮으나 고용효과는 상대적으로 우위

□ 서울의 창업률은 최근 정체하고 있으며, 기술창업은 생계형창업에 비해 비중은 낮으나 단위 사업체당 고용규모는 크게 나타나 고용창출 면에서 바람직

- 서울의 전체 창업률은 최근에 정체하는 추세
 - 2000년의 19.6%를 최고점으로 기록한 이후에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으며, 최근 다시 늘어나는 경향



자료: 김목한 외 2명, 2010, 「서울시 주요 산업별 창업패턴변화 추세에 관한 연구」

[그림 7] 서울시 전체 창업률 추세(1997~2008)

- 2009년 기준 기술창업은 창업에서의 비중은 낮으나 단위 사업체당 고용규모가 커서 상대적으로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
 - 제조업, 정보서비스업, 기술서비스업 등 기술창업과 연관된 주요 산업에서의 창업사업체는 각각 4,051개(4.62%), 1,432개(1.63%), 2,586개(2.95%)로 10% 미만
 - 하지만 이들 산업의 단위 사업체당 고용 규모는 제조업 3.8명, 정보서비

스업 8.5명, 기술서비스업 9명으로 생계형 창업의 평균 고용 규모인 3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

- 기술창업, 특히 첨단·고기술업종에서의 창업 후 생존율은 전체 창업의 평균을 상회하여 고용안정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위
- 전국 기준으로 창업 후 3년 생존율은 제조업과 첨단·고기술업종이 전체 창업 평균의 약 2배

<표 2> 창업기업 주요 업종별 생존율 차이

(단위: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전체	66	46	26
제조업	86	68	47
첨단·고기술업종	89	72	50

자료: 창업진흥원, 2011, 『MB정부 창업지원정책 분석 및 보완과제 연구』에서 수정

II. 서울시 기술창업의 정책수요 분석

서울시에는 기술창업의 기반은 존재하나 산업 생태계의 구축은 미흡

- ☐ 예비창업자와 기술창업기업 모두 서울의 기술창업 활성화 수준은 중간 정도라고 인식
 - 예비창업자와 기술창업기업 모두 5점 만점에 평균 약 3점 정도로 나타나 서울에서의 기술창업이 충분히 활성화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진단
- ☐ 서울에서 기술창업을 할 수 있는 물리적·산업적 기반은 조성되어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하는 기술창업 생태계의 형성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
 - 예비창업자와 기술창업기업이 공통적으로 서울의 하드웨어 인프라, 네트워크 환경은 평균 이상인 것으로 인식
 - 반면, 벤처자금 조달과 지식/혁신 환경이 평균 이하로서 지식의 생산과 혁신을 통해 상품화로 이어지고 재투자되는 과정인 산업생태계의 순환체계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임을 시사

기술창업기업 정책수요조사 개요

- 목적 : 서울시 기술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관한 정책수요조사
- 기간 : 2012년 5월 23일 ~ 6월 21일
- 대상 : 기술창업 예비창업자 152명, 기술창업기업 350개
- 방법 : 방문 면접 조사, 협조 요청 및 FAX/E-mail 조사 병행

기술창업기업은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체 혁신역량을 확대

- 기술창업기업은 경영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으며, R&D 투자 실적과 설비(장비) 투자 실적도 최근에 증가하는 경향
 - 조사대상기업의 41.4%가 2011년에 비해 경영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하여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32.6%를 상회
 - R&D 투자 실적은 2009년 2.4건에서 2011년 2.6건으로 증가하였고, 설비(장비) 투자 실적 역시 2.7건에서 3.1건으로 증가하여 경기 호전의 기대를 반영
- 기술창업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정체 중이나 인건비 지출 또한 증가하는 추세
 -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009년 38.8억원에서 2011년 38.6억원으로 큰 변화는 없으나 약간 감소하는 경향
 - 반면, 인건비는 2009년 7억원에서 2011년 7.4억원으로 증가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예비창업자가 다수

- 예비창업자는 창업기회와 창업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창업에 대한 두려움 또한 높은 수준
 -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창업기회가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36.2%로 창업기회가 있다는 응답 25.7%를 상회
 - 본인의 현재 창업능력에 대해서도 창업능력이 낮다는 응답이 전체의 34.2%로 높다는 응답 28.3%를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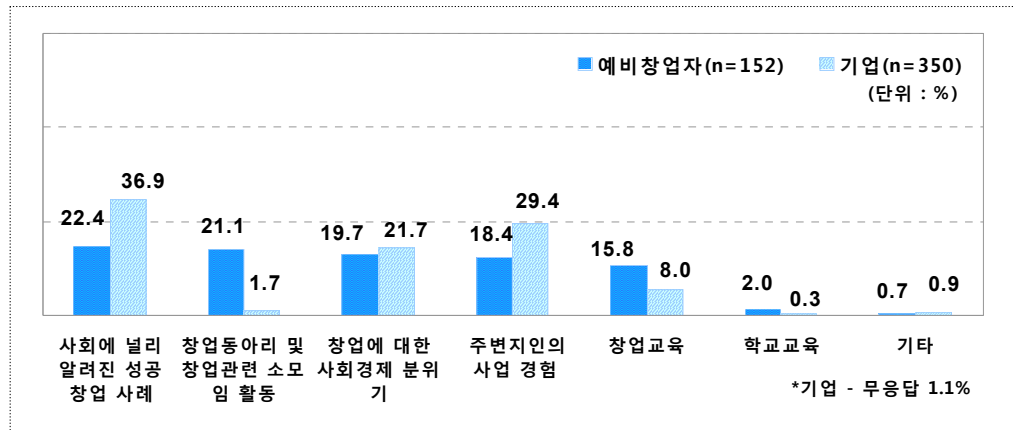
- 이에 대한 결과로서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예비창업자의 비중은 61.2%로 대다수를 차지

□ 이는 상대적으로 척박한 한국의 창업환경 실태를 반영

- 2011년 GEM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창업기회에 대한 인식은 전체 조사대상인 23개국 중 22위였으며, 창업능력에 대한 인식은 21위인 반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은 2위를 기록
- 서울에서 생계형 창업은 이미 포화 상태로서 차별화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기준 창업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생계형 창업의 대표 업종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발생하여 경쟁이 심화
- 기술창업은 초기 투자와 회수, 지속적인 혁신 비용 등의 부담이 높아 독자적인 창업과 생존에는 불리한 면이 있어 한국과 같이 기술창업 산업 생태계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보다 높은 리스크의 감수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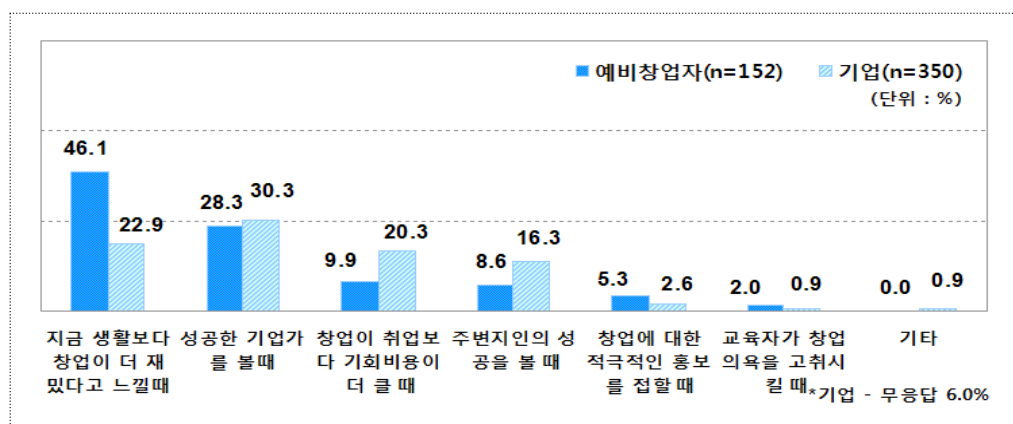
창업을 준비하고 결심하는 주요 요인은 주변의 성공창업 사례

- 성공창업사례, 주변 지인의 사업 경험 등 주변 환경이 창업에 대한 관심을 끄는 주요한 요인
- 예비창업자들은 창업에 관심을 갖게된 요인으로 '사회에 널리 알려진 성공 창업 사례'(22.4%), '창업동아리 및 창업 관련 소모임 활동'(21.1%), '창업에 대한 사회경제 분위기'(19.7%), '주변 지인의 사업 경험'(18.4%) 순으로 응답
 - 기술창업기업 경영자들은 '사회에 널리 알려진 성공 창업 사례'(36.9%), '주변 지인의 사업 경험'(29.4%), '창업에 대한 사회경제 분위기'(21.7%) 순으로 응답



[그림 8] 창업에 관심을 갖게 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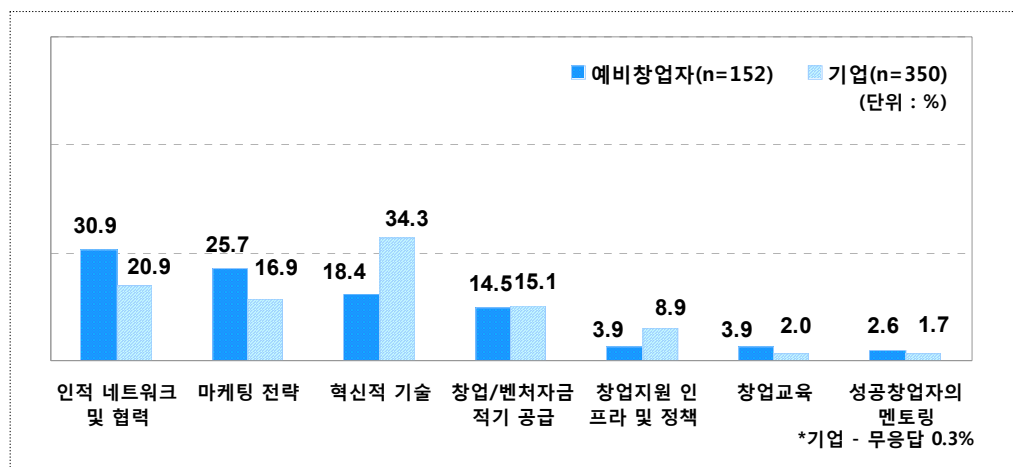
- 창업 결심 동기로는 예비창업자의 경우 개인적 흥미, 기술창업기업 경영자는 기회비용을 고려한 현실적인 이유가 다수를 차지
- 예비창업자들은 '지금의 생활보다 창업이 더 재밌다고 느낄 때'가 46.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은 '성공한 기업가를 볼 때'(28.3%) 순
 - 기술창업기업 경영자들은 '성공한 기업가를 볼 때'(30.3%), '지금의 생활보다 창업이 더 재밌다고 느낄 때'(22.9%), '창업이 취업보다 기회비용이 더 클 때'(20.3%), '주변 지인의 성공을 볼 때'(16.3%) 등의 순으로 응답



[그림 9] 창업 결심 동기

인적 네트워크, 마케팅 전략, 혁신적 기술이 창업 성공의 중요 요소

- 기술창업성공의 중요 요소로 예비창업자, 기술창업기업 경영자 모두 '인적 네트워크 및 협력', '마케팅 전략', '혁신적 기술'을 많이 지적
- 예비창업자는 창업 성공을 위해 '인적 네트워크 및 협력'(30.9%)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마케팅 전략'(25.7%), '혁신적 기술'(18.4%) 순으로 응답
 - 기술창업기업 경영자는 '혁신적 기술'(34.3%)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인적 네트워크 및 협력'(20.9%), '마케팅 전략'(16.9%), '창업/벤처자금 적기 공급'(15.1%)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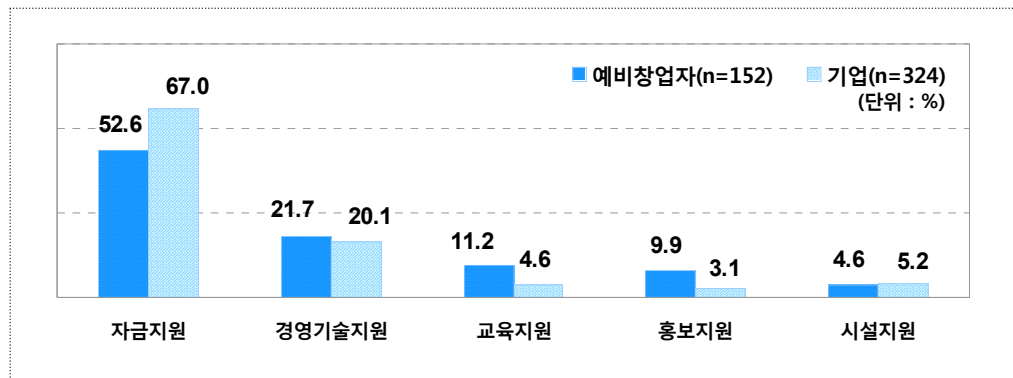


[그림 10] 창업 성공의 중요요소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과 경영기술 지원이 중요

-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비창업자와 기술창업기업 경영자 모두 자금과 경영기술 지원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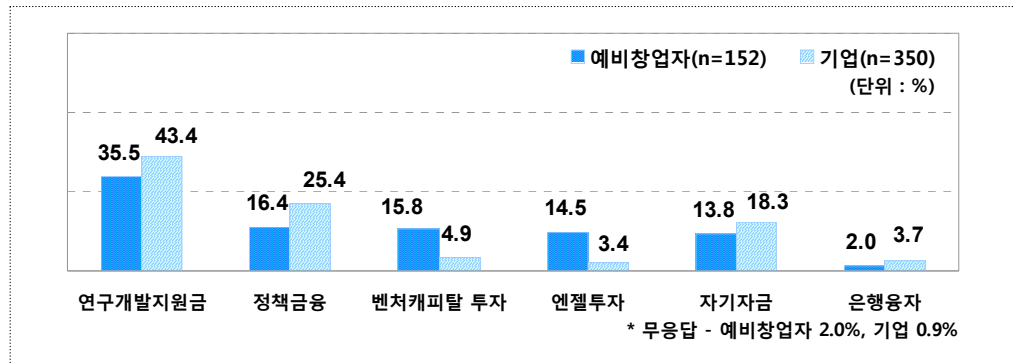
- 예비창업자들은 기술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분야로 응답자의 과반이 '자금지원'(52.6%)을 지적하였고, 다음은 '경영기술 지원'(21.7%), '교육지원'(11.2%), '홍보지원'(9.9%), '시설지원'(4.6%) 순으로 응답
- 기술창업기업 경영자는 67%가 '자금지원'을 꼽아 가장 많았고, 다음은 '경영기술 지원'(20.1%), '시설지원'(5.2%), '교육지원'(4.6%), '홍보지원'(3.1%) 순으로 응답



[그림 11]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분야

기술창업에 가장 중요한 자금원은 연구개발지원금과 정책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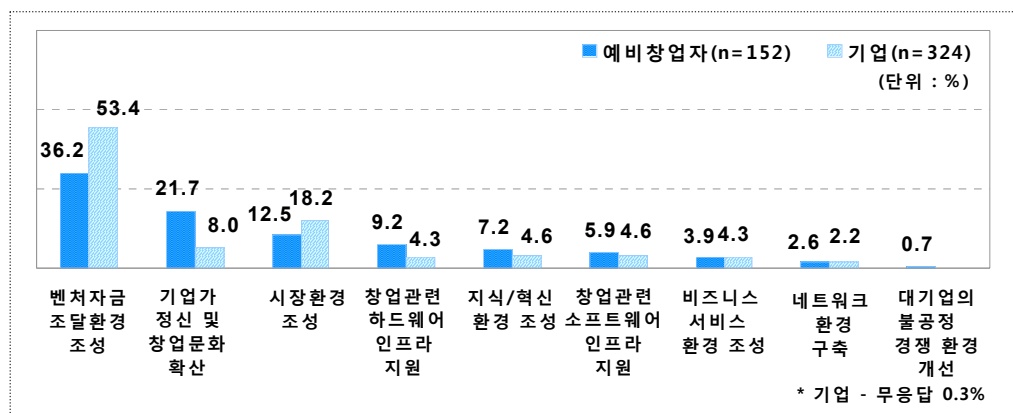
- 예비창업자와 기술창업기업 경영자 모두 연구개발지원금과 정책금융이 기술창업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
 - 예비창업자들은 가장 중요한 자금원으로써 '연구개발 지원금'(35.5%), '정책금융'(16.4%)을 들었고, '벤처캐피털 투자'(15.8%), '엔젤 투자'(14.5%), '자기자금'(13.8%)보다 중요시
 - 기술창업기업 경영자의 경우에는 예비창업자들 보다 '연구개발 지원금'(43.4%), '정책금융'(25.4%)의 중요성을 보다 높게 평가



[그림 12] 기술창업 시 가장 중요한 자금원

자금조달 및 시장환경 조성, 창업문화 확산이 기술창업 활성화의 우선과제

-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조달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었고 창업문화 확산, 시장환경 조성 등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
- 예비창업자들은 '벤처자금 조달환경 조성'(36.2%)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고, 다음으로 '기업가 정신 및 창업문화 확산'(21.7%), '시장환경 조성'(12.5%) 순으로 응답
- 기술창업기업은 '벤처자금 조달환경 조성'(53.4%)에 과반이 응답



[그림 13]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우선과제

Ⅲ. 서울시 기술창업의 생태계 구축방안

자금과 정보가 선순환할 수 있는 기술창업 생태계의 구축 필요

- ☐ 서울시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순환 생태계의 구축이 선행과제
 - 서울시의 인적, 물리적, 제도적 환경은 우수하나 민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플랫폼인 기술창업 생태계의 발전이 미진
 - 기술창업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R&D, 제품개발, 마케팅 등 단계별로 상이한 자금조달의 필요에 대응하여 정책자금지원, 민간투자유치 등 다양한 자금조달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시장환경의 조성이 우선과제
 - 마케팅, 기술지원 등의 창업정책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성공사례 전파, 리더십 교육 등을 통한 창업문화의 확산이 필요
- ☐ 서울시의 기존 역량과 정책을 기반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전략 구상이 필요
 -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및 혁신 정책을 체계화하고 민간의 다양한 기술창업주체와의 상호작용을 장려·확대하는 것이 필요
- ☐ 주요 추진전략

정책방향	추진전략
다양한 기술창업주체 간 혁신역량과 시장역량의 연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중심의 예비·초기창업자와 선도기업 연계 - 창업보육센터와 투자기능의 결합을 통한 자금 조달 - 서울대학연합의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검토
기술창업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전달 및 교육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창업 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채널을 사용하는 시스템 구축 - 창업 리더십 교육의 확대 및 강화 - 다양한 민간 창업교육기관과의 공동 교육체계 조성
기술창업정책의 체계화를 통한 단계별 지원체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창업의 단계별 가용정책 체계화 추진 - 기술창업단계별 실적 누적제 확대

다양한 기술창업주체 간 혁신역량과 시장역량의 연계를 확대

- 기술창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예비·초기창업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하여 민간 중심으로 시작
 - 기술창업을 경험하고 네트워킹과 시장 파워를 갖춘 선도기업과, 기술은 있으나 시장역량이 부족한 예비·초기창업자가 매칭하여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
 - 창업에서 운영까지의 멘토링을 제공하는 방식, 엔젤로서 창업자에게 초기 투자를 제공하는 방식 및 청년 창업자와 노년 경영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
 - 서울시는 예비·초기창업자와 선도기업의 연계 및 멘토링과 매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기술창업 혁신의 생태계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추진
 - 창업센터 등의 지역거점을 통해 지역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한 방법
- 창업보육센터와 투자기능을 결합하여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
 - 대부분의 기술창업기업은 엔젤과 벤처투자의 비중이 낮아 자체 자금을 통해 독립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에서 기술개발로의 투자가 미흡
 - 창업보육센터는 공간저가임대, 장비공동활용을 위주로 하는 1세대에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2세대, 그리고 다시 투자와 시장진출을 돕는 3세대 플랫폼으로 진화 중

- 서울시는 창업보육센터에 엔젤 및 벤처투자업체의 공동입주를 추진하고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등의 지원 창구를 설립하는 방안이 필요
- 서울시 중소규모 대학에 잠재된 혁신역량과 시장역량을 연결하여 서울대학 연합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고려
 - 서울시 소재 중소규모 대학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중소규모 대학의 개발 기술을 사업화하는 방안을 마련
 - 서울시는 서울기술혁신센터 및 서울지식재산센터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재 자체적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들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

기술창업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전달 및 교육 체계를 강화

- 개별기업 단위의 기술창업 지원 정보제공에서 기술창업의 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채널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
 - 기존의 정책은 단일 채널을 통한 정부주도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전제하고 있으나, 실제 예비창업자와 기술창업기업은 대개 인터넷, 창업동아리/모임 혹은 창업박람회 등 다양한 소셜 채널을 통하여 정보를 습득
 - 정부주도의 기술창업 지원 정보를 체계화하되 이런 정보가 민간 부문에 전달될 수 있는 채널을 병행해서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
 - 서울시 창업센터가 기술창업 지원 창구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확장하여 창업센터를 거점으로 창업동아리 및 온라인 카페, 기술창업 기업 교류회 등 소규모 정보 모임의 운영 확대가 바람직

- 창업의 동기를 부여하여 예비창업자들의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되는 창업 리더십의 교육 확대 및 강화가 필요
 - 예비창업자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창업에 부정적인 경향이 있거나 창업에 대한 기대와 성공한 기업가 사례의 소개를 통해 이를 넘어설 수 있는 동기부여 가능
 - 현재 주류인 실무위주의 창업교육과 더불어 창업을 결단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교육이 필요하며, 교육의 내용은 성공 및 실패 기업의 주요 사례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이 유효
- 기술창업교육을 위해 교육의 주체와 방식에서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창업교육기관과 공동의 교육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 예비창업자의 주류는 학생이므로 서울시 기관을 통한 홍보·교육 이외에도 일반 대학에서 정규교과목으로의 편성을 지원한다면 보다 효과적
 -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기술창업교육도 창업센터 인근의 대학 등을 대상으로 공동 학점제나 교육이수 인정 제도를 시행한다면 부가적인 성과도 가능
 - 이외에도 현재 리더십교육을 제공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와도 공동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

기술창업정책의 체계화를 통한 단계별 지원체계를 수립

- 새로운 정책의 시행보다는 현재 시행 중인 기술창업 정책을 정책 단계별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용정책의 체계화를 추진

-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체 기술창업정책은 상호보완적이며 다수의 정책기관이 서울에 입지하여 정책 간 시너지 효과의 잠재력이 풍부
 - 정부와 서울시 간에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는 기술창업정책을 창업단계에 따라 창업예비자 창업지원(기술개발·창업준비), 창업기업 지원(창업보육), 창업기업 시장안착 지원(기업성장·사후관리) 등 세 가지로 통합 혹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 초기에는 서울시가 주축이 되어 단계별 기술창업 지원정책의 체계를 정립하고 정보 공유나 사업 지원 시 보조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점차 정부-서울시의 공동사업으로 확장
- 단계별 지원체계가 정립된 이후에는 기술창업단계별 실적 누적제를 확대
- 현재도 일부 시행 중인 방식으로 창업 단계별로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한 실적을 보인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확대

신창호 |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2-2149-1221

sch@sdi.re.kr

김묵한 |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248

hookman@si.re.kr